

환경 및 산업보건			번호: J - C - 2		
제 목	국문	임신 초기의 위험요인 노출이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기관 공동연구			
	영문	Effect of exposure to risk factor during the first stage of pregnancy on pregnancy outcomes			
저 자 및 소 속	국문	하은희 ¹⁾ , 박혜숙, 이보은 ¹⁾ , 문혜성 ²⁾ , 김영주 ²⁾ , 하미나 ³⁾ , 임문환 ⁴⁾ , 임종한 ⁵⁾ , 홍윤철 ⁵⁾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¹⁾ , 이화의대 산부인과학교실 ²⁾ , 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³⁾ , 인하의대 산부인과학교실 ⁴⁾ ,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⁵⁾			
	영문	Eun Hee Ha ¹⁾ , Hye Sook Park ¹⁾ , Bo Eun Lee ¹⁾ , Hye Sung Moon ²⁾ , Young Joo Kim ²⁾ , Mi Na H ³⁾ , Moon Whan Im ⁴⁾ , Jong Han Leem ⁵⁾ , Yun Chul Hong ⁵⁾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²⁾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³⁾ ; Department of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⁴⁾ ;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⁵⁾			
분 야	환경 및 산업보건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1월				
<p>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된 다기관 공동연구로서 임신 중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초기(마지막 월경일부터 임신 4개월까지)에 노출된 환경적 위험인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만 후 임신결과를 확인하여 임신초기에 노출되는 위험인자가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방법 2000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 대학병원(E병원, I병원, D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통하여 산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은 재태연령 15 - 19 주의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축하여 분만까지 추적하고 임신결과를 확인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식력, 질병력, 임신초기의 약물복용, 음료수복용, 사고경험, 유해물질폭로, 생활습관과 환경, 식습관, 직업이다. 임신결과 기록은 선천성 기형, 저체중아, 조산으로 중절되거나 사산 또는 출산된 임신결과에 대하여 아이에 대한 의무기록과 산모에 대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상근 자료수집 간호사나 의사가 임신결과기록지에 기입하였다. 기입내용은 과거나 현재 분만 및 출산시 합병증, 내과적 및 외과적 문제, 임신중에 약물사용, 재태연령, 신생아 출산 또는 사산여부, 분만형태, 태아 성별, 몸무게, 키, Apgar score. 제대의 혈관, 매듭여부, 쌍태아, 조산, 저체중아, IUGR이었으며,</p>					

선천성 기형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조사 기간동안 이대병원 423명, 인하대병원 333명, 단국대병원 373명의 총 112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이 중 661명의 임신결과가 추적되어 58.5%의 추적율을 보였다. 연구 기간동안 조산아 발생률은 9.5%, 저체중아의 발생율은 8.7%, 선천성기형의 발생률은 1.3%이었다.

직접흡연과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저체중아 출산율은 5.1%인데 반하여 간접흡연에만 노출된 경우는 9.6%,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에는 12.2%로 저체중아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조산의 경우에도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에 모두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8.6%,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에 9.1%,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에는 12.5%가 발생하였다.

현재 직업유무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직업이 없는 군에서 조산아와 저체중아 출산 비율은 각각 11.1%, 9.7%이었으나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5.9%, 5.9%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조산아나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신초기에 헤어 스프레이나 방향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끔 사용한 군(9.2%)에 비해 일주일에 3번이상 사용한 경우(26.9%)에 저체중아 출산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임신 초기에 식습관이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편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저체중아 출산은 8.0%이었으나 편식을 한 경우에는 16.7%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임신 초기의 음료수 섭취에 따른 임신결과를 보면, 술을 마시지 않은 군에서의 조산아 출산은 8.3%, 음주 경험군에서의 조산아 출산은 9.6%이었고, 홍차를 전혀 마시지 않은 군에서의 조산아 유병률은 8.0%, 홍차를 마신 군에서의 유병률은 11.9%이었으며, 강장드링크를 마시지 않은 군에서의 조산아 유병률은 8.0%, 강장드링크를 마신 군에서의 유병률은 13.0%로 나타났다.

4. 고 찰

본 연구는 임신 초기의 위험요인 노출 즉, 헤어스프레이나 방향제 사용, 편식, 직접흡연이나 간접흡연에 노출, 음주, 홍차나 강장드링크 복용이 저체중아나 조산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